# 대방광불화엄경 부사의해탈경계
大方廣佛華嚴經 不思議解脫境界

# 보 현 행 원 품
普 賢 行 願 品

언제든지 나쁜벗을 멀리 여의고

영원토록 모든악도(惡道) 만나지 않아

아미타불 부처님을 속히 뵈어서

보현보살 뛰어난원(願) 구족하리니

## 개경게 開經偈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뵙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

# 보현행원품
普 賢 行 願 品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뛰어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래의 공덕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겁 동안에,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공덕문(功德門)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열 가지 넓고 큰 행원(行願)을 닦아야 하느니라.

열 가지라 함은 무엇인가?

하나는 모든 부처님을 예경함이요,
둘은 부처님을 찬탄함이요,
셋은 널리 공양함이요,
넷은 업장을 참회함이요,
다섯은 남이 짓는 공덕을 따라 기뻐함이요,
여섯은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함이요,
일곱은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이요,
여덟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움이요,
아홉은 항상 중생을 믿고 따름이요,
열은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함이니라."

선재동자가 사뢰어 말씀하되,
"거룩하신 이여, 어떻게 예경하며 내지 회향하오리까?"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을 예경(禮敬)한다' 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세계 티끌 수 부처님들을,
내가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
모두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경하되,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부처님세계의 티끌 수 같은 몸을 나투고,
낱낱 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부처님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을 두루 예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경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경도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業)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煩惱)가 다하면,
나의 예경도 다하려니와,
중생의 세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경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부처님을 찬탄(讚歎)한다' 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에 티끌이 있고,
낱낱 티끌 속마다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계심에,
내 마땅히 깊고 뛰어난 알음알이로 눈앞에 계신 듯이 뵈옵고,
각각마다 변재천녀(辯才天女)보다 나은 미묘한 혀를 내며,
낱낱 혀마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며,
낱낱 음성마다 한량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모든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하여 끊이지 않되,
온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찬탄도 다하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찬탄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널리 공양(供養)한다' 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에 티끌이 있고,
낱낱 티끌 속마다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계심을, 보현(普賢)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을 내어 눈앞에 계신듯이 뵙고,
모두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하되,
이른 바 꽃구름 · 영락구름 · 하늘음악구름 · 하늘일산구름 · 하늘의복구름과
가지가지 하늘의 향(香) · 바르는 향 · 사루는 향 · 가루향 등의 구름이 낱낱 크기가 수미산(須彌山)만하며,

또한 가지가지 등을 켜되 우유등 · 기름등 · 여러가지 향유등이며, 이와 같은 등(燈)의 낱낱 심지는 수미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닷물 같으니, 이러한 여러가지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한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法供養)이 으뜸이니,
이른 바 부처님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거두어 주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菩薩業)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菩提心)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다.

선남자여,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는 공덕은 잠깐 동안 닦는 법공양의 공덕에 비한다면,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백천구지 나유타분의 일도, 가라분의 일도, 산분의 일도, 수분의 일도, 비유분의 일도, 우바니사타분의 일도 되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여래께 공양함을 성취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다.

이 넓고 크고 가장 뛰어난 공양을,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업장(業障)을 참회(懺悔)한다' 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에,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惡業)이 한량없고 가없어, 만일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라.

내 이제 깨끗한 세 가지 업으로 널리 법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
모든 불보살님 앞에 두루 지성으로 참회하되,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한 계행의 모든 공덕에 머물러 있으오리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도 다하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功德)을 따라 기뻐한다' 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세계의 티끌 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發心)하실 때로부터 온갖 지혜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겁을 지내고,
낱낱 겁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세계에서 티끌 수 같은 머리와 눈과 손과 발을 버리고,
이와 같은 모든 행하기 어려운 고행(苦行)을 하면서,
가지가지 바라밀문(波羅蜜門)을 원만히 하였고,
가지가지 보살지혜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에 드신 뒤 사리를 나누어주실 때까지의 선근을 내가 다 따라 기뻐하며,
저 시방 모든 세계의 육도(六道) 윤회하는

사생(四生)의 모든 종류 중생들이 짓는 공덕, 내지 한 티끌만 한 것이라도 모두 따라 기뻐하며,
시방삼세의 모든 성문, 벽지불인 배우는 이, 배울 것 없는 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따라 기뻐하며,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닦으며,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따라 기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따라 기뻐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설법(說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 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티끌 속마다,
각각 말로 다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광대한 부처님세계가 있고,

이 낱낱 세계에서 생각생각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계셔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모든 보살들이 둘러앉아 계시거늘,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내가 항상 모든 부처님께 바른 법 설해주시기를 청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부처님께 이 세상(世上)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 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부처님과 또한 모든 보살과 성문 · 연각인 배우는 이,

배울 것이 없는 이 내지 모든 선지식(善知識)들이 열반에 드시려 하실 때,
내가 두루 청하되,
'열반에 들지 마시고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내가 이렇게 청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몸과 목숨을 보시하시되,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꺾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 경전 쓰기를 수미산만큼 하시면서도,

법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거늘,
하물며 어찌 왕위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산림 등의 모든 소유랴!

또한 가지가지 행하기 어려운 고행이나, 내지 보리수 아래서 대보리(大菩提)를 이루시는 일이나,
가지가지 신통 보이시어 변화 일으키시는 일이나,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나투사 온갖 대중 모인 곳에 계시되,
대보살들이 모인 도량이나 혹은 성문과 벽지불들이 모인 도량이나 전륜성왕(轉輪聖王)과 소왕(小王)과 그 권속들이 모인 도량이나,
찰제리(剎帝利)나 바라문(婆羅門)이나 장자나 거사(居士)들이 모인 도량이나 내지 하늘과 용과 팔부신중(八部神衆)과 인비인(人非人)들이 모인 도량 등 이러한 가지가지 모임에서,
원만하신 음성을 마치 큰 천둥소리처럼 하여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 중생을 성숙시키시던 일이나,

내지 열반에 드심을 나투심에,
어찌 몸과 목숨을 아끼시겠는가?
이와 같이 온갖 일을 내가 모두 따라 배우되,
지금의 세존이신 비로자나부처님께와 같이,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티끌 속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생각생각마다 모두 따라 배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여도,
나의 이 따라 배움은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항상 중생(衆生)을 믿고 따른다' 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있으니,

이른 바 알[卵]로 나는 것 · 태(胎)로 나는 것 ·
습기(濕氣)로 나는 것 · 화(化)해서 나는 것들이,
땅 · 물 · 불 ·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이나 풀과 나무를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데,
가지가지 생류와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모습과
가지가지 수명과 가지가지 종족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심성과
가지가지 지견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거동과
가지가지 의복과 가지가지 음식으로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거처하며,
내지 모든 하늘과 용과 팔부신중과 인비인 등으로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과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빛깔 있는 것 · 빛깔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 생각 없는 것 · 생각 있지 않은 것 ·
생각 없지 않은 것들이다.

이러한 가지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믿고 따라서,
가지가지로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같이 공경하며 스승같이 받들며,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빛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숨은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은 이와 같이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이익 되게 한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능히 중생을 믿고 따른다면,
곧 모든 부처님을 믿고 따라 공양함이 되며,
중생을 존중하여 받들어 섬김은
곧 여래를 존중하여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을 기쁘게 함은 곧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大悲心)으로 체(體)를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각을 이루신다.

비유하면 넓은 벌판 모래밭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가 모두 무성하니,
생사광야의 보리수왕(王)도 역시 그러하여,
모든 중생으로 뿌리를 삼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로 꽃과 열매를 삼거늘,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케 하면,
즉시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혜의 꽃과 지혜의 열매를 성취한다.

왜냐하면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케 하면, 아누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리(菩提)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끝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한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라.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므로 능히 원만히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믿고 따르면,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믿고 따르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믿고 따름은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廻向)한다' 는 것은,
처음의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중생에게 모두 다 회향하는데,
중생들이 모든 병고(病苦) 없이 항상 안락하기를 원하여,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모두 속히 성취(成就)하며,
모든 악도(惡道)의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고,
중생들이 이미 지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모든 괴로움은 내가 대신하며,
저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케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닦은 공덕을 회향하는데,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회향은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계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큰 원을 구족(具足)하고 원만케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 원을 믿고 따라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아누다라삼먁삼보리를 믿고 따르게 하여,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원을 원만히 성취케 한다.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라.
만약 어떤 선남자 · 선여인이 시방의 한량없고 끝이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세계에 가득 찬 훌륭한 칠보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락을,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들께 공양하면서 저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내도록 끊지 않고 계속한 공덕을,
어떤 사람이 이 원왕(願王)을 한 번 들은 공덕과 비교한다면,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내지 우바니사타분의 일에도 또한 미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큰 원을 받아 가지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내지 한 게송만이라도 쓴다면, 다섯 가지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질 업이 속히 소멸하며,
세간에서 받는 몸과 마음의 병과 가지가지 고뇌와 내지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모든 나쁜 업이 소멸하며,
또한 모든 마군(魔軍)이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다 · 비사사 · 부다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나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은 발심하여 친근하며 수호(守護)한다.

따라서 이 원왕(願王)을 외우는 사람은 세간을 지냄에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하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시며, 모든 인간이나 천상사람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중생이 다 마땅히 공양하리라.

이 선남자는 훌륭한 사람 몸을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하고, 마땅히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처럼 미묘한 몸을 성취하여 삼십이상을 갖출 것이며,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나는 데마다 뛰어난 종족 가운데 나서 능히 모든 악취(惡趣)는 다 없애며, 모든 악한 벗은 다 멀리하고, 능히 모든 외도는 다 조복 받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마치 사자왕이 뭇 짐승들을 굴복시킴과 같아서,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으리라.

또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는 마지막 찰나에, 모든 신체기관이 흩어지고, 모든 친족들은 모두 떠나고, 모든 위엄과 세력은 다 사라져서, 정승이나 대신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말이나 수레나 보배나 재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건만,

오직 이 원왕(願王)만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언제나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왕생하고는 즉시에 아미타불과 문수사리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자재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뵈오리니,
이 모든 보살들이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공덕을 구족하여 둘러 계시거늘,
이 사람은 자기가 연꽃 속에 태어났음을 보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授記)를 받아서,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겁을 지내도록 시방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익되게 하고,
머지않아 마땅히 보리(菩提)도량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고 등정각을 성취하며,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능히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선남자여,
저 모든 중생들이 이 큰 원왕(願王)을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사람이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원왕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아라. 마땅히 지성으로 받아 읽고, 읽고는 외우며, 외우고는 항상 지니고, 내지 베껴써서, 남을 위해 설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생각 동안에 모든 행원(行願)을 성취하며,

그 얻는 복(福)의 크기는 한량이 없고 가없으며, 능히 큰 번뇌 고해 중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생사에서 벗어나 아미타불(阿彌陀佛)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하게 되리라."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말씀하시고자, 널리 시방(十方)을 관(觀)하시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가이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에
과거 현재 미래세의 부처님들께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옵되

보현보살 행과원의 위신력으로
널리모든 부처님앞 몸을나투고
한몸다시 많은수로 몸을나투어
두루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한티끌속 티끌수효 부처님들이
보살대중 모인속에 각각계시며
온법계의 티끌속도 그와같아서
부처님이 충만하심 깊이믿사와

각자마다 한량없는 음성으로써
다함없는 묘한말씀 널리내어서
오는세상 모든겁이 다할때까지
부처님의 깊은공덕 찬탄합니다

아름답기 으뜸가는 모든꽃다발
좋은풍류 좋은향수 좋은일산들
이와같은 가장좋은 공양거리로
제가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으뜸가는 좋은의복 좋은향들과
가루향과 사루는향 등과촛불의
낱낱것을 수미산의 높이로모아
제가모두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넓고크고 뛰어나온 이 내 마음
모든삼세 부처님을 깊이믿어서
보현보살 행과원의 위신력으로
두루두루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지난세상 제가지은 모든악업은
욕심많고 성잘내고 어리석어서
몸과말과 뜻으로서 지었음이니
제가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시방세계 여러종류 모든중생과
성문이나 연각이나 유학무학들
부처님과 모든보살 지니신공덕
제가모두 함께따라 기뻐합니다

시방세계에 계시는 세간등불인
가장처음 보리도를 이루신님께
비할수없는 묘한법문 설하시길
제가지금 정성다해 권청합니다

부처님들 대열반에 들려하시면
오래오래 이세상에 머무시면서
중생에게 이익안락 주시옵기를
제가모든 정성다해 권청합니다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한복덕
오래계셔 법문하심 청하온공덕
따라함께 기뻐하고 참회한선근
중생들과 깨달음에 회향합니다

제가여러 부처님을 따라배우고
보현보살 원만행을 닦고익혀서
지난세상 시방세계 부처님들과
지금계신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오는세상 부처님께 공양하오니
일체모든 즐거움이 원만하도록
널리삼세 부처님을 따라배워서
무상보리 속히얻기 원하옵니다

가이없는 시방세계 모든곳마다
넓고크고 청정하게 장엄하옵고
대중들이 부처님들 둘러모시어
보리나무 아래모두 계시옵거든

시방세계 온갖종류 모든중생들
근심걱정 여의어서 항상즐겁고
깊고깊은 바른법문 이익얻어서
번뇌모두 없어지길 원하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할때에
태어나는 국토마다 숙명통얻고
날때마다 출가하여 계행을닦아
깨끗하고 범함없이 두루지키고

하늘과용 야차들과 구반다들과
사람들과 인비인등 모든중생들
중생들이 쓰고있는 여러말로써
가지가지 음성으로 설법하오며

청정하온 바라밀다 힘써닦으며
어느때나 보리심을 잊지않아서
모든업장 모든허물 없애버리고
일체모든 묘한행을 성취하리니

연꽃잎에 물방울이 붙지않듯이
해와달이 허공중에 머물지않듯
모든번뇌 모든업과 마군의경계
세간살이 그속에서 해탈을얻고

모든악과 온갖고통 모두없애어
중생에게 평등하게 즐거움주길
이와같이 세계티끌 겁을지나도
시방중생 이익함이 끝이없으며

어느때나 중생들을 믿고따라서
오는세상 모든겁이 다할때까지
보현보살 넓고큰행 항상닦으며
위가없는 보리도를 원만히하리

저와함께 보현행을 닦는사람들
어디서나 같은곳에 함께모여서
몸과말과 뜻의업을 똑같이하여
모든행원 함께닦아 배우겠으니

바른길로 나를돕는 선지식께서
우리에게 보현행을 일러주시면
어느때나 나와같이 함께모여서
어느때나 환희심을 내어지이다

바라건대 부처님이 불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시옴을 항상뵈옵고
넓고도큰 공양거리 항상올리되
미래겁이 다하여도 지치지않아

부처님의 미묘법문 모두지니고
가지가지 보리행을 빛나게하여
청정하온 보현의길 끝까지닦아
오는세상 다하도록 닦아익히니

시방삼세 넓은세상 중생속에서
닦아얻은 복과지혜 다함이없어
선정지혜 모든방편 해탈삼매로
한량없는 모든공덕 이루오리다

한티끌속 티끌수효 세계가있고
세계마다 한량없는 부처님계셔
곳곳마다 많은대중 모인가운데
보리행을 연설하심 항상뵈오며

한량없는 시방법계 모든세계에
털끝만한 곳곳마다 삼세의바다
한량없는 부처님과 많은국토에
두루두루 무량겁을 수행하오리

부처님들 말씀하심 청정함이여
한말씀속 여러가지 음성갖추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음성을따라
음성마다 부처님의 변재이시니

시방세계 삼세모든 부처님께서
그와같이 다함없는 말씀으로써
깊은이치 묘한법문 설하시거늘
제지혜로 깊이깊이 들어가리다

제가능히 미래세에 깊이들어가
모든겁을 통틀어서 일념만들고
과거현재 미래세의 모든겁들을
일념으로 만들때에 모두들어가

삼세속에 계시옵는 한량없으신
부처님들 일념속에 모두뵈옵고
부처님의 경계속에 항상들어감
환술같은 자재해탈 위력입니다

한터럭끝 티끌속에 한량이없는
삼세장엄 세계모두 나타나오며
시방법계 티끌세계 터럭끝마다
제가깊이 들어가서 장엄하여서

오는세상 시방법계 세간등불이
성도하고 설법하고 교화하시며
하실일을 마치시고 열반들려면
제가두루 나아가서 친히모시리

재빠르게 두루도는 신통의힘과
모든문에 다통하는 대승의힘과
지혜와행 널리닦은 공덕의힘과
위신으로 널리덮는 자비의힘과

청정하게 장엄하는 복덕의힘과
집착없고 기댐없는 지혜의힘과
선정지혜 모든방편 위신의힘과
널리능히 쌓아모은 보리의힘과

한량없는 모든선업 청정케한힘
끝이없는 모든번뇌 부숴버린힘
모든마군 항복받는 거룩한힘등
원만하게 보현행을 닦은힘으로

한량없는 모든세계 장엄하여서
한량없는 모든중생 해탈케하며
한량없는 모든법을 분별하여서
한량없는 지혜바다 깊이들어가

한량없는 모든행을 청정히하고
한량없는 모든원을 원만히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무량겁을 부지런히 수행하옵고

과거현재 미래세의 모든부처님
가장좋은 보리도인 모든행원을
제가모두 공양하고 원만히닦아
보현보살 큰행으로 보리이루리

모든세계 부처님의 맏아드님은
그이름도 거룩하신 보현보살님
제가지금 온갖선근 회향하오니
원하노니 지혜와행 그와같고저

몸과말과 뜻의업을 깨끗이하고
모든행과 모든세계 또한깨끗이
이런지혜 이름하여 보현이시라
저도항상 보현보살 같아지이다

두루두루 청정하신 보현의행과
문수사리 법왕자의 모든큰원의
모든사업 남김없이 원만히닦되
미래세가 다하도록 싫어않으리

한량없는 많은수행 모두닦아서
한량없는 모든공덕 모두이루고
한량없는 온갖행에 머물러있어
한량없는 신통의힘 분명히알며

문수사리 법왕자의 용맹지혜와
보현보살 지혜행도 그러하시니
모든선근 제가이제 회향하여서
이분들을 항상따라 배우오리다

삼세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이와같이 뛰어나고 크신서원에
제가이제 모든선근 회향하옴은
뛰어나신 보현행을 하렴입니다

원하오니 이목숨이 다하려할때
여러가지 모든장애 모두없어져
찰나중에 아미타불 친견하옵고
뵙자마자 극락세계 가서태어나

제가이미 극락세계 태어나서는
그자리서 이큰원을 모두이루고
온갖것을 남김없이 원만히이뤄
모든중생 이롭도록 하여지오며

저부처님 모인대중 청정할지니
제가이때 연꽃속에 태어나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그자리서 보리지혜 받아지니며

부처님의 주신수기 받자옵고는
한량없는 화신(化身)의몸 나타내옵고
지혜의힘 넓고크게 시방에퍼져
두루두루 모든중생 이롭게하리

허공계가 다하거나 중생세계의
업과번뇌 다한다면 모르거니와
이와같은 모든것이 다함없을새
저의원도 언제까지 다함없으리

가이없는 시방세계 장엄하옵는
온갖보배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티끌겁이 다하도록 천상인간을
가장좋은 안락으로 보시한대도

어떤이가 뛰어나온 보현원왕을
한번듣고 마음에서 믿음을내어
무상보리 구할생각 간절만하면
이사람의 얻는공덕 훨씬뛰어나

언제든지 나쁜벗을 멀리여의고
영원토록 모든악도 만나지않아
아미타불 부처님을 속히뵈옵고
보현보살 뛰어난원 구족하리니

이사람은 길이길이 수명얻으며
난데마다 항상좋은 사람몸받고
머지않아 당연하게 보현보살의
크고넓은 보살행을 성취하리다

지난옛적 어리석고 지혜없어서
무간지옥 빠질죄를 지었더라도
보현행원 큰원왕을 읽고외우면
한생각에 무거운죄 소멸하리니

날적마다 좋은가문 좋은모습과
좋은상호 복과지혜 원만하여서
마군들과 외도들이 범접못하니
삼계중생 온갖공양 능히받으며

오래잖아 보리나무 밑에나아가
여러가지 마군들을 항복받고서
무상정각 성취하고 법을말하여
모든중생 빠짐없이 이익주리라

누구든지 보현원을 읽고외우고
받아지녀 대중위해 연설한다면
그과보는 부처님만 능히아시니
어김없이 무상보리 얻게되리라

어떤사람 보현원을 능히외우는
그선근의 일부분을 말씀하리니
일념간에 모든공덕 원만히하여
중생들의 청정한원 성취하리라

제가지은 뛰어나온 이보현행의
가이없이 뛰어난복 회향하오니
바라건대 고해중의 모든중생들
아미타불 극락세계 어서가소서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 앞에서 이 보현의 넓고 큰 원왕(願王)의 청정한 게송을 설하시니,
선재동자는 한량없이 기뻐 뛰놀고 모든 보살들은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옳다 옳다!" 하시며 찬탄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거룩하신 여러 보살마하살과 더불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의 뛰어난 법문을

연설하실 때,
문수사리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대보살들과,
그 보살들이 성숙시킨 육천의 비구들과,
미륵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현겁의 모든 대보살들과,
무구보현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이시며 관정위(灌頂位)에 이르신 대보살들과,
널리 시방여래세계에서 모이신 모든 세계 티끌 수 같은 모든 보살마하살과,
대지사리불과 마하목건련 등을 우두머리로 하는 대성문들과,
인간과 천상과 세간의 모든 임금들과,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인비인 등,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 받들어 행하였다.